

월드컵 이후 국민들은 확실하게 달라진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월드컵 대회는 우리 한민족사에 커다란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나라를, 온 국민이 가슴을 열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치만 변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가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계기로 우리 정치도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3류 정치에서 일류정치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전사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전상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과 굳건한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작년 9.11 테러 당시 우리는 미국의 정치권이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을 인상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정치, 일류정치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국의 안정과 선진정치의 구현을 위해 오늘 국민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후보에게 충심 어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부패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하루 속히 정리하고,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권 말기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문제를 비롯한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쟁중단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긴급 제안합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과반수 의석을 가진 거대 한나라당이 현정부의 중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책임자, 즉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도 소모적인 정쟁중단과 대선에서의 정당당한 공정경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사사건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옷 로비 사건 이후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뒤이은 특검제 공방 등으로, 2년 간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으로 날을 지새웠던 사실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검찰과 정치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은 이 정부의 임기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무부장관을 맡아 일체의 성역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합시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검찰을 흔들고, 정략의 수단으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정쟁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도록 합시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되, 정치권은 일체의 개입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천 700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 기간 내내, 각



종 게이트를 빌미로 서로 샷대질을 하는 추한 정치를 끝냅시다. 이번 대선 만큼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정책과 비전 제시를 통해 생산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월드컵 이후 정치의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으로 [정쟁 중단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한 현실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집권여당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당후보로서 어떠한 기득권도 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당 후보에게 주어지는 일체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충정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부패청산 특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양당 대통령 후보회담'을 제안합니다.

부패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집권할 때마다 부패청산의 강한 의지를 피력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20년 간 똑같은 부패 시비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내내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목놓아 부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부패지수 45위의 부패국가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를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입으로만 부패청산을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부패청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줍시다.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 입법을 제정합시다.

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 입법을 양당 합의로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입법화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 조사 기구를 설치합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집니다.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권력의 의지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써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검사제를 한시적으로 제도화 합시다.

넷째, 일정액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합시다. 깨끗한 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다섯째, 부정을 저지르면 부정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고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도록 해서, 이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집권 당시의 국민을 향한 약속이 얼마나 헌신짝처럼 취급되어 왔는지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이율배반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결코 놓칠 수 없는 결단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 입법을 추진하여 차기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법이 시행되도록 합시다.

위 특별 입법들을 연내 제정하고 차기 대통령 취임과 동시



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이회창 후보의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대선과정에서의 정정당당한 공정경쟁은 향후 정치발전의 긴요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양당 대통령 후보회담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정부가 이룬 IMF 국난 극복과 남북화해의 초석 마련은 역사의 금자탑으로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현 정부의 공(功)만큼은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확실히 이어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병폐와 현 정부의 잘못은 반드시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측근과 아들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습니다.

대통령의 자식들이 얼마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분명히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태재단과 김홍일 의원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와 여론이 어떠한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들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월드컵 대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전 세계의 어느 국민보다 우수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만 달라진다면 선진국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패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패 문제만큼은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에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국운 융성의 해인 2002년을 부패청산의 원년으로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